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7집 '꽃, 다시 첫번째'로 6년만에 컴백
박지윤

춤 대신 기타…스물일곱의 변신

"예전 댄스 가수 시절도 저의 모습이니 '잊어달라'는게 아닙니다. 20대 후반의 박지윤(27)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이번 음반에 담은 것 뿐입니다."

가수로는 6년의 공백을 깨고 7집 '꽃, 다시 첫번째'를 발표한 가수 박지윤이 28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갤러리 겸 카페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7집은 발매 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한 박지윤이 기타를 기반으로 한 어쿠스틱한 사운드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1997년 1집 '하늘색 꿈'으로 데뷔해 댄스 히트곡 '난 남자야', '성인식'을 부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길이다.

"7집은 제게 첫 번째 음반 같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가창자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처음 곡 작업을 하고 프로듀서로 참여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담았죠."

이날 라이브로 공개한 자작곡 '봄, 여름 그 사이에'는 자신이 봄과 여름 사이에 했던 사랑이 생각나 가사를 썼다고 한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소멸해 간다는 내용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박지윤은 음반을 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데 대해 "어린 시절 데뷔한 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 휴식이 필요했다"며 "자신이 없었고 나의 길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연예인이 하고 싶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길을 갈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걸 찾은 뒤 음반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댄스가수 박지윤 버리는 건 아니다 그것도 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도 됐다고 털어놓았다. 박지윤의 이번 음악은 지금의 시장 트렌드인 후렴구가 강조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음악에서 벗어나 있어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탓이다.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분명히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생각이 흔들렸다면 음반이 못 나왔겠죠. 하지만 주위에서는 박지윤이 대중적인 댄스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우려했죠."

박지윤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고민은 있었지만 잘 되고 못 되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내가 무대에서 감동 받으며 노래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다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댄스 가수 때의 박지윤을 버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버리는 건 아니다. 그것도 나니까"라며 "예전과 같은 댄스 음악은 안할 것 같다. 내가 원래 춤을 잘 못 춰 예전에도 춤추는 걸 힘들어했다. 그때도 8개월씩 열심히 연습해야 했다. 오랜 시간 춤을 안 추니 예전으로 돌아갔다. 옛날 활동 영상을 보면 '저때는 잘췄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웃었다.

"기회가 닿으면 연기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는 그는 "려원, 비, 빽가, 소이 등 나를 잘 아는 주위 동료는 음반을 듣고 어색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며 "'너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다'는 응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7집에는 수록곡 9곡 중 '봄, 여름 그 사이', '그대는 나무같아', '괜찮아요' 등 박지윤의 자작곡 3곡과 넬의 김종완이 작곡한 '4월16일',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작사한 '잠꼬대', 루시드폴이 작곡한 '봄 눈', 비의 '레이니즘(Rainism)'을 쓴 작곡가 배진렬씨가 만든 '돌아오면 돼' 등이 수록됐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지영, 김호진, 손태영

최근 엄마가 된 탤런트 김지영과 손태영이 나란히 드라마에 복귀한다.

두 사람은 '아내의 유혹' 후속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방송되는 '두 아내'(극본 이유선, 연출 윤류해)에서 김호진의 두 아내로 호흡을 맞춘다.

탤런트 남성진과 결혼해 지난해 11월 첫 아들을 얻은 김지영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시는데 연기가 갑자기 확 늘지는 않았겠지만 감정에 조금 더 깊이가 생긴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인생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하는 것이 행복하긴 하지만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촬영장 구석에서 가끔 울기도 한다"며 "손태영 씨와 함께 해 서로 이해가 잘 돼서 좋다"고 덧붙였다.

그가 맡은 역할은 매사 적극적이고 막힘이 없는 캔디 같은 성격의 아줌마 윤영희. 어느 날 자신을 버린 남편 강철수(김호진)이 교통사고로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려 새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기억하는 기구한 상황을 맞는다.

엄마된 탤런트 김지영·손태영 '두 아내'로 나란히 드라마 복귀

김지영은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니 연기를 하면서 자꾸 대입을 하게 되는데 내 남편이 이러면 어떨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떨어져 더 생각도 못했다"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권상우와 결혼해 지난 2월 첫 아들을 얻은 손태영은 '두 아내'로 출산 3개월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에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지만 혼자 귀국해 아이를 낳은 미혼모 한지숙으로 출연한다.

손태영은 "임신했을 때 살이 많이 안 찌긴 했는데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이 빨리 빠질 줄은 몰랐다"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연기하면서도 감정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아내'의 출연 계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일드라마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큰 역할에 캐스팅돼 기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BC '신데렐라 맨'에 출연 중이 남편 권상우와 동시에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서로 촬영이 바빠서 오래 보지 못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함께 열심히 하자고 서로 힘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오리콘 싱글차트 동방신기 6회 1위 기록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처음 오리콘 위클리 싱글차트 6회 1위 기록을 세웠다.

이번 기록은 22일 발매된 27번째 싱글 '셰어 더 월드(Share The World)!'가 오리콘 위클리 싱글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이뤄졌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1월 발매된 '퍼플 라인(Purple Line)', 4월 '뷰티풀 유(Beautiful you)/천년연가', 7월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되어 버렸을까', 10월 '주문-MIROTIC'에 이어 올해는 1월 '볼레로/키스 더 베이비/와스레나이데(잊어버리지마)'와 이번 싱글까지 1위에 올랐다.

(주)국민법률경매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매

☎ 062)351-8240 H.P 010-7203-1100

아파트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계동	첨단선경	79	8천	5천6백
		첨단동부	112	1억3천	9천1백
		첨단금호	112	1억1천	7천7백
		첨단쌍용	95	9천8백	6천8백
		첨단두산	72	6천2백	4천3백
	월곡동	영천마을주공	105	1억1천	7천7백
남구	봉선동	대화	158	1억2천5백	8천7백
		무등파크	102	9천5백	6천6백
		라인하이츠	85	7천5백	4천9백
	주월동	영무예다음	128	1억5천	1억5백
		명지	145	1억3천	9천1백
		금영푸르미	105	1억2천8백	8천9백
서구	화정동	현대	99	1억	7천
		대림이편한세상	181	4억	2억8천
	쌍촌동	용산그린	103	9천	6천3백
		부건빛고을	112	1억3천5백	9천4백
	금호동	호반리젠시빌	103	1억4천	9천8백
		도시공사	79	8천2백	6천5백
		라인	122	1억2천	8천4백
		금호베스트빌	125	1억9천	1억3천3백
	치평동	금호타운	103	1억6천	1억1천2백
	풍암동	금호타운	123	1억6천	1억1천2백
북구	용봉동	현대	102	1억1천5백	8천
	일곡동	현대	79	7천5백	5천2백
	운암동	미라보	194	1억7천	
	연제동	현대	201	1억6천5백	
	동림동	푸른마을	79	6천8백	4천7백
	두암동	모아미래도	102	1억5천	1억5백
	신용동	용두주공	75	6천4백	4천4백
	양산동	우미	105	8천	5천6백
동구	산수동	광명	165	1억6천5백	
	운림동	무등파크	112	9천5백	6천6백

다가구/원룸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남구	월산동	264/992	7억7천7백	5억4천4백
광산구	월계동	328/492	4억2천	2억9천4백
서구	화정동	303/446	3억5천7백	1억6천
북구	신안동	421/634	6억5백	4억2천3백
동구	계림동	331/731	6억6천3백	4억6천4백

주택/농가주택/전원주택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남구	백운동	138/87	7천8백	3천5백
	백운동	141/77	1억1백	4천5백
서구	서창동	245/78	4천	2천8백
	농성동	707/85	2억8천9백	1억2천9백
		197/156	1억1천8백	8천3백
동구	소태동	340/15	6천8백	4천7백
광산구	삼거동	810/289	1억	5천6백
	신기동	136/181	1억1천4백	7천9백
북구	삼각동	413/182	1억6천5백	
	오치동	161/158	1억1천6백	5천2백
	각화동	277/208	1억6천3백	9천1백
	두암동	514/334	3억4천5백	1억9천3백
	풍향동	118/91	6천5백	3천6백
	지야동	337/179	1억1천1백	7천1백
나주시	남평읍	289/79	3천5백	2천5백
완도군	신지면	489/150	6천5백	4천6백
함평군	월야면	1392/316	1억4천8백	6천5백
	학교면	660/183	5천1백	1천8백
화순군	동복면	628/96	4천1백	1천4백
	이양면	903/111	1천9백	
		331/104	5천9백	4천1백
	농주면	430/112	3천5백	2천4백
나주시	봉황면	414/135	5천2백	3천6백
장성군	장성읍	1121/122	5천6백	
	황룡면	1153/133	6천8백	
무안군	일로읍	564/125	6천5백	3천6백
	망운면	426/135	7천3백	4천1백
	해제면	780/73	3천2백	2천3백
	망운면	352/134	5천1백	3천5백

공장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비아동	807/696	5억4천2백	3억7천9백
	용동	1321/877	9억6천7백	5억4천2백
북구	오치동	929/764	7억4천9백	2억6천3백
담양군	금성면	5066/916	6억7천8백	4억7천4백

임야

구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서창동	임야	470	5천5백	3천8백
보성군	문덕면	임야	175363	8천4백	8천4백

토지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동구	소태동	780	대	1억6천3백	1억1천4백
남구	백운동	1252	전,대	7억4천1백	3억3천2백
광산구	송대동	298	전	1천6백	1천1백
	송정동	133	대	3천5백	2천5백
	두정동	191	전,	1천1백	5백
	요기동	410	대	2천6백	1천1백
	쌍암동	406	대	4억4천7백	2억5천
	비아동	423	전	8천4백	4천7백
	내산동	2296	답	4천5백	
남구	철석동	109	대	1천6백	5백
	지석동	878	전	1억7백	
서구	매월동	754	임야	1억3천9백	9천7백
	마륵동	2354	답	11억2천	
보성군	벌교읍	4651	답	2천5백	1천
함평군	손불면	1616	전	1천1백	3백
	함평읍	15317	전	1억6백	7천4백
	학교면	3729	전	2천4백	
	월야면	10446	답	6천7백	
	임다면	8890	답	8천4백	
	신광면	9223	전,답	5천3백	3천7백
해남군	산이면	21531	전	2억5천4백	1억7천8백
보성군	조성면	3064	전	7천5백	4천2백
	복내면	6195	답	3천3백	2천3백
무안군	운남면	992	잡	9백	6백
화순군	이양면	2155	답	2천5백	2천
	남면	2713	답	3천5백	2천4백
	북면	1031	답	9백	5백
	춘양면	1349		1천2백	5백
나주시	봉황면	2508	공장용지	8천7백	4천9백
		1195	답	1천4백	1천
	금천면	257	대	2천2백	1천5백
	반남면	2172	답	5천8백	
	문평면	834	답	7백	
		1280	답	1천4백	
	산포면	2251	전	1억1천4백	
		3474	전	1억5천9백	1억1천1백
	봉황면	1200	답	1천2백	8백
곡성군	삼기면	4758	전	2천6백	
영암군	금정면	48297	임야	2억4천3백	1억7천
	삼호읍	779	대	2억4천9백	1억1천1백

토지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장성군	동화면	2478	답	6천1백	4천3백
	삼계면	3729	전	5천	3천5백
	북하면	937	답	1천4백	
	삼서면	2918	답,전	9천9백	6천9백
		2517	답	2천5백	1천7백
	황룡면	4161	답	4천9백	
		6817	답	7천8백	
	동화면	2026	답	2천	
	삼계면	3729	전	5천8백	3천5백
		2783	답	5천5백	3천8백
		2056	답	8천2백	5천7백
담양군	고서면	1964	답	3천3백	
	봉산면	1699	답	2천5백	1천7백
		4007	전	4천5백	2천8백
	창평면	925	답	7백	4백
해남군	해남읍	49325	임야	1억8백	6천

근린주택/근린상가/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	월산면	14758/1550	7억3백	4억9천2백
남구	월산동	348/880	4억6천3백	1억3천2백
북구	두암동	176/640	4억2천	
	신안동	291/977	8억6천9백	3억5천5백
서구	쌍촌동	590/204	3억5천8백	2억5천
	화정동	764/1035	10억9천4백	7억6천6백
	풍암동	29	1억2천	
	풍암동	249/614	5억4천4백	3억8천1백
광산구	월곡동	480/1036	9억1천4백	6억4천
		43	1억5천	8천4백
	우산동	165/218	1억3천5백	9천4백
	쌍암동	455/1657	19억5500	10억9400
동구	금남로5가	264/293	10억8천1백	7억5천7백
	동명동	142/140	1억9천1백	1억3천4백
화순군	도곡면	563/254	2억	1억4천

농가전원시설

구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보성군	조성면	축사	2519/763	1억1천4백	4천9백
		돈사	2023/2210	1억4천	6천2백
화순군	한천면	견사	895/697	9천9백	5천1백

서울/경기지역아파트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	감정가	최저가
강동구	성내동	광남빌리스	164	7억5천	3억8천4백
	상일동	고덕주공	69	6억2천	3억9천6백
	천호동	제일	128	4억5천	2억8천8백
강남구	삼성동	서광	79	5억5천	3억5천2백
		벽산블루밍	174	13억	6억6천5백
	도곡동	삼성	79	6억7천	5억3천6백
성북구	돈암동	한신	89	3억1천	2억4천8백
관악구	봉천동	현대	79	3억1천	1억9천8백
	신림동	신림현대	132	5억	3억5천2백
송파구	거여동	2차쌍용	125	6억3천	4억3백
	가락동	가락금호	125	7억	4억4천8백
광진구	광장동	현대홈타운	174	14억	8억9천6백
노원구	상계동	대주동방	138	6억2천	3억9천6백
		수락한신	141	5억3천	3억3천9백
		상계주공	79	2억7천	2억1천8백
	중계동	주공2단지	59	1억8천	1억4천4백
동대문구	장안동	은하수	102	3억	2억4천
	제기동	동성타워	105	2억8천	2억2천4백
동작구	신내동	동성타워	79	3억	2억1천
	면목동	동아한신	49	1억5천	1억2천
	묵동	신내대림	151	6억2천	3억9천6백
강서구	등촌동	5단지주공		3억2천	2억5천6백
	염창동	현대	115	4억3천	2억7천5백
	화곡동	송이	108	2억5천	1억6천
양천구	신월동	보람수용	108	3억4천	2억1천7백
		궁전	79	1억8천	1억4천4백
	신정동	목동2차우성	138	8억	5억1천2백
성동구	금호동	벽산	105	5억5천	3억5천2백
	옥수동	옥수하이츠	138	8억5천	5억4천4백

연천지역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	감정가	최저가
계양구	효성동	대신	62	1억2천	8천4백
부평구	갈산동	갈산이안	115	3억	2억1천
	일신동	일신주공	89	1억8천	1억2천6백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112	2억1천	1억4천7백
	만수동	대동주택	102	2억2천	1억5천4백
	만수동	성신	79	1억2천	8천4백
연수구	선학동	아주	102	2억1천	1억4천7백
서구	마전동	현대	122	2억3천	1억6천1백

주택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강북구	미아동	66/51	2억3천	1억4천7백
강서구	방화동	136/132	4억3백	2억6백
	방화동	174/178	6억4천3백	4억1천1백
성북구	정릉동	69/44	1억2천	9천6백

다가구/원룸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동작구	대방동	102/153	4억1천6백	3억3천3백
		96/134	4억9백	3억2천7백
도봉구	방학동	169/316	5억9백	3억2천5백
양천구	신월동	149/208	6억5천5백	3억3천5백

• 상기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